

**국어(한문 포함)**

문 1. 밑줄 친 표현 가운데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에는 동그라미표를 치고 맞는 것에는 가새표를 치시오.
- ② 이 공원은 위험한 놀이 기구가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놀기에 알맞는 곳이 아니다.
- ③ 겁에 질린 철수는 선생님께 "아니오."라고 얼떨결에 대답해 버렸다.
- ④ 저기서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은 김철수 씨의 동생이예요.

문 2.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북악 Bukak
- ② 알약 allyak
- ③ 별내 Byeollae
- ④ 팔당 Paldang

문 3.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과인산(過磷酸), 사육신(死六臣)
- ② 미립자(微粒子), 총류탄(銃榴彈)
- ③ 파염치(破廉恥), 강수량(降水量)
- ④ 가정란(家庭欄), 실락원(失樂園)

문 4.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수업중에 휴대전화를 받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 ② 그가 구입한 물건이 얼마 어치인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 ③ 그 사람은 오직 졸업장을 따는데 목적이 있는 듯하다.
- ④ 그는 차를 살 만한 형편이 못 된다.

문 5.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자녀는 아들과 딸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 ② 육계장이 너무 매워 아직까지 입 안이 얼얼하다.
- ③ 그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이 파레져서 달려갔다.
- ④ 쓰러져도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야지.

문 6. 다음의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 제1항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2항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제3항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다.
- 제4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① 외래어도 국어이므로 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문자나 기호를 쓸 필요가 없다.
- ② ‘graph’는 ‘그래프’로 적는다.
- ③ 받침 표기는 국어의 음절 말 자음 체계와 일치한다.
- ④ ‘Paris’는 ‘파리’로 적는다.

문 7.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해방 직후 문단에는 식민지 시대 문학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 문학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문단의 준비를 이루면서 대부분의 문학인들이 식민지 시대의 문화적 체험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 문학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식민지 시대 문학의 청산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 이루어진 민족정신의 위축을 벗어나 민족 문학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노력한다. 일본 제국주의 문화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비판에 근거하여 민족 주체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강요된 민족 문화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고는 새로운 민족 문화의 건설을 생각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당시 문단에 널리 일반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① 해방 직후 문단의 과제는 식민지 문학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 문학의 건설이었다.
- ② 식민지 문학의 청산은 식민지 시대의 문화적 체험에 대한 자기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 ③ 새로운 민족 문학 건설은 민중 문학으로서의 특성에 대한 진로 모색에 관심을 집중했다.
- ④ 민족 문화의 왜곡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문단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문 8. 다음 글에 드러나는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發하면 말이 되고, 말에 節奏가 있으면 歌와 詩와 文章과 賦가 된다. 四方의 말이 비록 같지 않으나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자라면, 각각 그 말에 따라 節奏를 붙이면 다 족히 天地를 움직이고 鬼神을 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홀로 中國에만 限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詩文은 그 말을 버리고 他國의 말을 배워서 쓰니, 가령 十分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만 獍虎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 내는 것일 뿐이다. 閩巷의 樵童汲婦가 웅얼거리며 서로 和答하는 것이 비록 鄙俚하다고 하더라도, 그 참과 거짓을 따진다면 이는 진실로 學士大夫들의 이른바 詩賦 따위와는 함께 논할 바가 아니다.

- ① 秋風唯苦吟 / 世路少知音 / 窓外三更雨 / 燈前萬里心
- ② 冬至入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 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③ 東京明明月良 / 夜入伊遊行如可 / 入良沙寢矣見昆 / 脚烏伊四是良羅 / 二盼隱吾下於叱古 / 二盼隱誰支下焉古 / 本矣吾下是如馬於隱 / 奪叱良乙何如爲理古
- ④ 남(南)으로 창(窓)을 내겠소. / 말이 한참같이 // 꿩이로 파고 / 호미론 김을 매지요 //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 강냉이가 익질랑 / 함께 와 자셔도 좋소. // 왜 사냐건 / 웃지요.



문 14. 다음의 옛 글을 현대어 표기로 바꿀 때 일어나지 않는 음운현상은?

무술년 겨울히 유스를 거느리고 도적으로 더브러 남희 섬  
바달 가운데 가 크기 사화 이긱기를 타서 뜨르조쳐 가느리를  
뿔오다가 순신이 느는 탈환의 마즌 배 되어 죽기에 남흥여  
좌우드려 닐러 곶오디

- ① 구개음화                      ② 음라우트
- ③ ‘ㅎ’ 중성의 탈락            ④ 원순모음화

문 15. <訓民正音> 制字에서 加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ㄱ - ㅋ                      ② ㄴ - ㄷ
- ③ ㅁ - ㅂ                      ④ ㅇ - ㆁ

문 16.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사람은 왜 자꾸 늡느냐?
- ② 어린애는 날마다 조금씩 키가 크다.
- ③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 해라.
- ④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없느냐?

문 1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음의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들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江)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江)을 보겠네.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①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의 결합으로 시적 대상을 제시하였다.
- ② 고전적인 어미 사용으로 전통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 ③ 인간의 삶과 자연을 대치시키는 구조를 통해 비유적 의미를 보여준다.
- ④ 인생의 무상함과 유한함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태도를 느낄 수 있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세기 철학자 이이는 사람이 내는 소리 가운데 뜻을  
가지고, 글로 적히고, 쾌감을 주고, 도리에 합당한 것을 문학  
이라고 했다.

- ① 유학자 특유의 교훈주의적 사고방식이 드러난다.
- ② 구비문학을 문학에 포함시켰다.
- ③ 문학의 기본 요건으로 의미를 설정하였다.
- ④ 문학이 무엇인가를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문 19.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세상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 명문을 얻기 위해서는 학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처신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대대로 내려오는 ㉡ 명문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후세에 남을 ㉢ 명문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양자의 상관성을 ㉣ 명문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① | 名文 | 名門 | 名聞 | 明文 |
| ② | 名聞 | 名門 | 名文 | 明文 |
| ③ | 名聞 | 名門 | 明文 | 名文 |
| ④ | 名文 | 名門 | 明文 | 名聞 |

문 20.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사장 : 예, 본인은 이 자리에서 ‘신경영’이라는 과제를  
엄숙하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그동안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해 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선량한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몇몇  
임직원들의 나태한 근무 자세가 선량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사원들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30분 늦게 출근하고 나서는 교통이 막혀서  
늦었다고 둘러대는 사람, 근무 시간에 사사로이  
전화하는 사람, 회사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 30분 일찍 점심 먹으러 나가서는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 뒷사람에게  
고분고분하고 아랫사람에게 쓸데없는 권위를  
부리는 사람, 이러한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이  
회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는 냉엄한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여야  
겠습니다.

본인은 ‘신경영’이라는 대과제에 거슬리는 사람은  
철저히 도태시키겠습니다.

(박수 소리)  
(잠시 후)  
부장 : 이봐, 박 대리,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이번은  
심상치가 않은데. 내일 아침부터 우리 부원만이라도  
“신경영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라는 리본을 달고  
근무하자구.

박 대리 : 아이구, 저런 이야기 한두 번 들어 봅니까.  
얼마나 오래가나 두고 보자구요. 하지만 일단  
( )

- 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잖아요.
- ②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라고 했잖아요.
- ③ 호랑이가 없는 곳에는 토끼가 왕이지요.
- ④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해 가는 것이 최고지요.